

# 아시아에 찾아온 새로운 정체성, 아시아공동체

## -아시아 공동체론 강의 후기

지금은 왜 아시아 공동체인가? 이것은 첫 수업의 주제가 되었던 문장이다. 이 질문은 첫 수업 뿐만 아니라 모든 수업에서 답변하고자 했던 바라고 할 수 있다. 매 수업마다 각기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였기 때문에, 지금이 왜 아시아 공동체인가에 대해 명확하게 한 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다양한 관점 속에서도 모두가 공유하는 공통점이 있는데, 나라간 국경이 희미해지는 이 시점에서는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어 다양한 국가가 협력을 해야 한다는 것, 즉 현재는 아시아 공동체의 형성이 매우 필요한 시대라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시대는 기존의 경쟁의 패러다임에서 공존의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아시아의 국가들은 정치, 경제, 사회, 역사 모든 측면에서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그 촘촘한 연결망 속에서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도 하고 갈등을 빚기도 한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도 찾을 수 있는 상생의 가능성과 공존의 정신이 바로 현재 아시아에 필요한 가치이다.

이렇게 아시아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공통적인 시각을 주축으로 하여, 이 수업에서는 아시아 공동체를 정의하고 구축할 수 있는 과정을 매우 다양한 각도에서 제공해주었다. 그 접근 방법에는 일본, 중국, 중앙아시아, 러시아 등 여러 나라의 관점에서의 시각, 정치·경제·역사·사회·문화 등 다방면적인 관점에서의 접근, 또는 나라 간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부각시키는 접근 등 그 방법은 매우 무수하고 다양하였다.

이렇게 많은 시각 중에서도, 가장 빈번하고 중점적으로 다루어진 것은 경제적 교류를 통한 공동체의 결성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아시아 공동체는 그저 동의만 하면 순식간에 구축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씩 차근차근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그 첫걸음이 될 수 있는 가장 쉬운 접근이 경제적 측면에서의 교류이기 때문일 것이다. 즉, 경제협력과 교류를 바탕으로 경제 공동체를 확립하는 것이 아시아공동체 설립의 첫 단추로서 성공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도 많은 교수님들이 경제적 측면에서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이 어떤 협력을 맺어왔고, 또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교류의 흐름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언급하셨다. 따라서 수업을 들으면서 가장 인상적이었고 많이 배운 부분이 바로 이 경제적 통합을 통한 공동체의 형성이었다.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협력이 필요한 이유는 한국과 일본의 경제구조를 통해 알 수 있는데, 우리나라와 일본은 경제발전 과정이나 인구구조의 변화 등에서 매우 유사하며, 이것은 우리나라도 결국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하지만 문제는, 일본의 경제 침체의 원인이 되었던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의 심화가 불러온 경제구조의 변화나 자본주의의 변질 등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현재 아시아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일본'이라는 사례를 통해 위험을 벗어날 실마리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으며, 일본의 경제침체의 원인을 알고, 일본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안다면 그것을 기본으로 새로운 방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아시아 공동체는 경제 침체에 대한 공동 대처의 장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다. 동아시아 공동체의 필요성은 특히 아시아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가가 얽혀있는 '무역'시장에서도 부각된다. 중간재 교역을 중심으로 가치를 주고받으며 생긴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현재 아시아는 중국의 성장을 발판삼아 많은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아시아는 이렇게 국제적 무대에서도 큰 의존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그만큼 아시아가 협력을 통해서 대외충격의 타격에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을 함께 대비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경제적 측면에서의 접근 이외에도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 역사적 측면에서 아시아는 고유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데, 서구의 제국주의가 일으킨 큰 충격 이후 과거사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서구예의 의존으로부터 탈피하여 '아시아의 아시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아시아만의 가치와 제도, 지식의 확립이 필요하고, 이것은 아시아 공동체라는 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다. 또한 북한의 핵무기 위협의 측면에서도 아시아는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외부로부터의 국내 안보를 지키기 위한 핵심 수단인 핵무기가 북한 밖, 특히 북한과 인접해있는 아시아의 국가들에게는 오히려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렇다. 각국이 핵우산이나 협정 등을 통해 핵문제에 대응할 지침들을 만들고 있지만, 이러한 단독적인 대응보다는 모든 나라가 힘을 합쳐 북한의 핵 포기를 촉구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핵문제도 아시아 공동체를 조성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될 것이다. 이외에도 영화 교류, 즉 문화적 공유를 통한 공조와 상생 정신의 형성과 그것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의 형성, 유교라는 동아시아 공통의 문화를 통한 접근 등 그 방법은 매우 다원화 되어있다.

아시아 공동체 형성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그것을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다양하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이 실현되기 위한 전제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젊은 세대들의 인식과 태도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시아의 젊은 일원으로서 현재 아시아가 겪어야 하고 극복해야 하는 새로운 '변화'의 주축이기 때문이다. 미야지마 히로시 교수님의 강의에서, 반드시 공통점이 있어야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이 어떤 차이가 있고 또 그 차이가 어떻게 같은 문제에 대해 다른 생각을 하게 하였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배양해야 할 것은 바로 이러한 자세일 것이다. 공통점 안에서도 차이가 있음을 알고 그 차이가 서로 다른 사고를 만든다는 것을 이해할 때 진정한 공동체가 성립된다는 관점이다. 현재에도 전 세계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같은 것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진정한 아시아 공동체는 처음부터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어디서부터 그리고 왜 다르게 되었는지를 알아가는 '상호 이해'의 노력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차이가 어떻게 공동체를 자유롭게 그리고 평화롭게 하는지를 알 때 우리는 변화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 수업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게 되었다. 그동안 대한민국, 한국인, 한민족이라는 공통된 영토 안에만 국한되어 있던 사고가 국가를 넘어 확장될 수 있는 큰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즉, 가시적인 경계인 국경이라는 '지역'적 개념을 넘어 여러 나라가 한 데 어우러져 공존할 수 있는, 아시아 공동체라는 '상상'속의 새로운 경계 관념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 경계는 비록 인지적으로 설정된 것이지만, 내부에서의 충돌이나 외부의 강한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단단한 보호막이 되어줄 것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 또한 아시아의 젊은 세대들이 그 중심에 서서 융통적이게 경계를 설정하면서도 견고하게 경계를 유지하는 역할을 해내야 된다는 것도 말이다. 이렇게 역할과 경계와 새로운 가치에 대한 재설정이 요구되는 시대에서는 새로운 학습이 요구된다. 기존의 지식에서 탈피하거나 기존의 것을 확장하여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습득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배움의 첫 걸음은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고 다양한 집단의 목소리를 허용하는 대학에서 시작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의 시대, 지금은 '아시아 공동체' 이다!